

투데이 칼럼

세대 한쪽지 ‘겉재’

5월에 접어든 직장인 L은 ‘폼위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다. 달모가 상당히 진형된 머리에 가발도 없히고, 차도 좀 ‘있어 보이는’ 차로 바꾸고 싶은 것이다. L은 최근에 ‘G’로 시작하는 승용차에 꽂혀있다. 물론 출고된 지 4년 된 ‘하이브리드’형 SUV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덕에 1천만 원이 넘는 차를 반값으로 폼에 안을 수 있었다.

연비 효율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엔진 소음 없이 스르르 미끄러져 나가는 승차감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보다도 마음을 끌게 만든 것은 ‘남들이 봤을 때’ 폼 나는 고급스러운 외형이었다.

이 정도 외관의 SUV면 ‘어디 가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다. 좀 있어 보이는 SUV 운전석에 엉덩이를 걸치는 L의 결모습을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라 생각하니 은근히 어깨가 으쓱했다.

SUV를 골리고 다닌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솔직히 보조금 덕을 본 SUV는 여전히 눈속임으로 억지 ‘고급’에 자신을 우겨넣은 것 같아 화장실에서 큰 거보고 뒤통리 안한 것처럼 찝찝했다.

그러던 차에 ‘G’로 시작하는 차가 바깥 눈에 들어왔다. 저 정도는 타야 그럭저럭 일가를 이룬 것 같고 ‘고급’ 자리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G’는 가격 만해도 1천만 원 이상이지만 한번 쫓긴 필은 쉽게 거뒀을 일

수 없었다. 물론 SUV도 그럭저럭 탈만 했지만 처음으로 출시된 하이브리드 형 SUV라 그런지 잔고장이 가끔 있었다. 그렇다고 차가 못 굴러 갈 정도의 고장은 아니었고 미세한 소음이 난다든가 내부의 편의시설 장치에 약간의 트러블 정도였다. “내가 차를 ‘G’로 바꾸려는 것은 SUV의 하자 때문이지 남들에게 폼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고!” 이런 말로 L은 ‘G’를 구입하고 싶은 욕구를 SUV의 하자로 핑계 대는 것이 다.

입사동기 K를 L은 이해할 수 없다. K는 구입한 지 20년 가까이 된 차를 지금도 타고 있다. K는 퇴직 때까지 이 차와 함께할 거라고 말했다. 퇴직할 때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K가 자신의 차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지만 K은 자신의 차에 그다지 애착을 보이지 않은 것 같았다.

차에 먼지나 이물질 혹은 흙이 묻어 있는 경우는 없지만 군데군데 스크래치가 있거나 심지어 문짝이 약간 패이 기까지 했지만 수리하지 않고 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차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차 겉도 깨끗하게 하고 흠집 하나 없이 말끔하게 해서 타고 다녀야하는 거 아닌가. 차에 애정은 있는데 돈은 쓰지 않는다는 건가.

그렇다고 L이 돈 쓰는데 인색한 것은 아니다. 동료들 경조사를 챙긴다든가, 후배들에게 가끔 밥을 사는 등의 일상적인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은 했다.

“차 좀 수리해서 타고 다녀! 돈도 벌 만큼 버는 사람이! 새차를 하나 뽑던지!” 하고 핀잔하면 L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약간의 스크래치는 이 차의 역사야. 사람도 나이가 들면 얼굴이나 몸에 주름이 만들어지고 잡티가 생기지 않아. 차도 마찬가지야. 내차가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 나는 더 정이 가.”

“남들 보기에 폼이 안 나잖아, 안 그래?”

“왜, 내가 남들에게 폼을 내고 잘 보여야지? 왜, 내가 내 돈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를 모를 대중들 앞에서, 그들 눈을 즐겁게 하려고 숨을 쉰까?”

“남들 앞에서 숨을 쉰는 게 아니라 ‘자기만족’ 이라고.”

“자기만족? 자기만족이라면 만족의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만족의 기준을 세우는 거 아닌가?”

K의 완강함은 L은 슬쩍 뒤로 물리는 기분이 들었다.

“요즘 가발이 진짜같이 좋다는데, 머리는 어떻게 할 거야?”

K도 L처럼 ‘민둥머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난 조금 더 머리가 빠지면 완전히 밀고 다녀려고 나는 ‘겉재’를 부리면서 살고 싶지 않네.”

“겉재?”

“겉으로만 꾸며서 멋 부리는 거 말이야.”

이 대목에서 L은 더 이상 K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없어 보이는 거 보다 있어 보이는 게 좋지 않은가.

몇년 가발을 해서 머리에 혁 쓰고 말리라. 또 ‘G’를 구입하리라 단단히 결심한다. 물론 많은 금액의 할부금 때문에 허리가 휘겠지만 ‘폼위유지’하려면 그 정도 출혈은 감내해야 한다.

오 상 군

본보 경제부장

사설

대선 후보의 AI 공약

차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인공지능(AI) 공약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해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과 규제 완화를 앞세우고 있다. 개혁신당은 기술 실현 가능성과 제도 설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정당별 AI 전략은 공통적으로 ‘미래 산업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실행 방향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국가 주도형 투자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세부 방향과 강조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며 100조원 규모의 공공 투자 계획을 밝혔다. 그가 내놓은 대표 공약은 ‘한국형 챗GPT’의 전 국민 무상 제공

이다. AI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보급하겠다는 구상은 과거 무상 급식 그리고 무상 교통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기술 접근을 기본권으로 보고 AI 활용 기회를 국민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복지 모델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들은 전반적으로 정부 개입의 강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국민의힘 후보들 역시 AI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첨단 산업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제시된 투자 규모만 해도 수십조원에서 200조원에 이르고 있다.

당 전체적으로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인프라 기반 조성을 기조로 삼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AI 관련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산업계에도 의미 있는 흐름이다. 향후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실행력과 현실성이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

종교단체와 전직 대통령 독대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느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돈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를 주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독대를 했다는 소위 ‘해당 종교단체의 2인자’는 무언가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말을 했다.

검찰이 확보한 ‘건진법사’의 휴대전화에선, 해당 종교 관계자가 보낸 현금 봉지 사진과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논의한 듯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5월, 종교 창립 기념 행사에서 돌연 대통령의 이름이 나왔다.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의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이 남성은 ‘해당 종교의 2인자’로 불린 당시 세계본부장이다.

그는 “한반도 서밋(정상회담)과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수억 원을 받고 대통령과의 독대를 주선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성배 등 두 사람은 ‘윤석열 대선 캠프’가 꾸려진 2021년 12월부터 연락한 걸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당시 문자메시지에선 현금 3천만 원 사진이 나온 걸로 전해졌다.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인 2022년 12월엔 본부장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거론하며 ‘산업은행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성배 씨는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배 등 두 사람은 2023년 12월부터 1년간 336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종교단체 사무실이 있던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청탁과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런던에서 인도의 미사일 공격 규탄하는 시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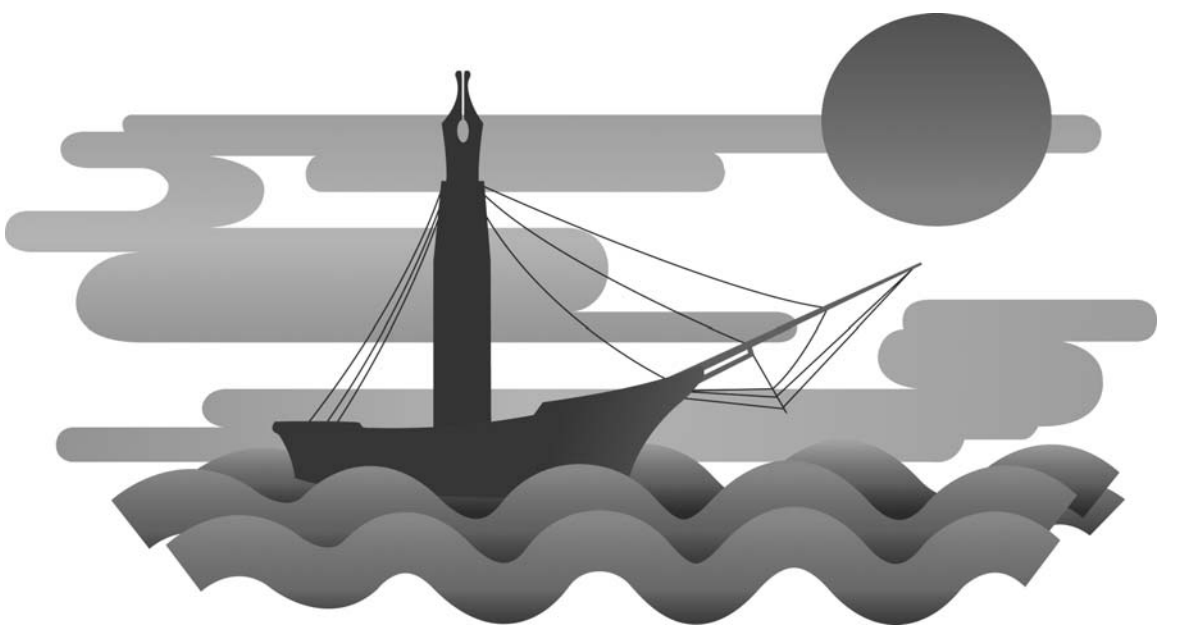


7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인도 고등판무관 건물 앞에서 파키스탄 국적으로 보이는 시위대가 인도의 미사일 공격에 항의하고 있다.

교황 선출 불발 알리는 검은 연기



7일(현지 시간) 오후 9시경 비티칸 시국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교황 선출 불발을 알리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제267대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들의 비밀회의 ‘콘클라베’ 첫 투표가 실시됐으며,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선출되면 흰 연기가 피어올라 결과를 알린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